

## 2020年度新卒者向け採用活動のレポート（韓国編）

### ～2020년도 신규졸업자 대상 채용활동 보고서（한국편）～

本年4月に入社しました韓国出身の崔(チェ)と申します。現在の所属は茨城支社です。  
올해 4 월 입사한 한국출신의 최정락이라고 합니다. 현재소속은 이바라키 지사입니다.

さて、8月下旬、来年度新卒者向けの会社説明会を行うため、弊社代表の鈴木社長と共に私の出身校である白石大学(ベックソック)に行ってきました。その活動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그러면, 8 월 하순 내년도 신규졸업자를 위한 회사 설명회를 하기위해, 당사 대표인 스텔스 사장님과 함께 저의 모교인, 백석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先ずは、母校とその地域について簡単に紹介致します。  
우선, 모교와 그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자 합니다.

私の母校は、韓国の天安市(チョナン)にあります。天安市は、人口が66万人、昔から韓国南地方からソウルに行く際は必ず通る街で、今なお交通の要衝としての名残があります。저의 모교는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66 만정도의, 예부터 서울을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마을 이였기에, 지금까지도 교통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また、大学が4校もある学生の街でもあります。白石大学は、天安市の北に位置し、天安市で最も有名な4年制大学で、同じキャンパス内には2年制の白石文化大学があります。또한, 대학이 4 곳이나 있기에 학생들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천안시의 북쪽에 위치해, 천안시에 가장유명한 4 년제 대학 중 하나로, 동일 한 캠퍼스에 2 년제의 백석 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今回の会社紹介の対象者は、学内の‘K-move’という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る学生たちです。‘K-move’とは、海外で働きたい学生たちを支援する国のプログラムで、母校でも日本をはじめ様々な国を対象にしてこのプログラムを運用しています。

이번 회사설명회의 대상자는, 교내 ‘K-move’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K-move’란,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모교에도 일본어를 시작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私もこのプログラムの3期生として参加し現在に至っております。

会社説明会は、韓国語に翻訳した紹介資料をもとに説明し、質問を受ける形式で行いました。

저는 이 프로그램의 3기생으로 참여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 설명회는, 한국어로 번역해둔 소개자료를 기초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後輩たちに当社の沿革、本社と支社の所在と主な業務内容、入社前後の流れを説明し、当社の強みと福利厚生、地域貢献活動などをアピールしました。

후배들에게 당사의 연혁, 본사와 지사의 주소와 주된 업무내용, 입사전후의 흐름을 설명하고, 당사의 강점과 복리후생, 지역공헌활동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会社の業務内容や入社前後の流れを説明するときは緊張した雰囲気もありましたが、取引先の園児が描いてくれたいわき本社の壁画の説明をした時には、後輩たちの笑顔を見ることができて嬉しかったです。

회사의 업무내용과 입사 전후의 흐름을 설명할 때에는 긴장한 분위기 도 있었지만, 거래처의 유치원 원생들이 그려준 이와키 본사의 벽화를 소개할 때에는 후대들의 미소도 엿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質問応答の時間では、最近の政府間の外交悪化による心配が多く、日本での生活に支障がないのか、社内の雰囲気が悪化していないか、という言う質問が多かったです。その他、面接とテストに関する質問や私の日本での生活に関する質問でした。

질의 응답 시간에는, 최근 정부간의 외교 악화에 따른 걱정이 있었, 이에 따른 일본에서의 생활에 영향은 없는가, 사내 분위기가 악화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외, 면접과 테스트에 관한 질문과 저의 일본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会社説明会の一コマ】  
【회사설명회의 한 장면】



【恩師への表敬訪問、鈴木社長と】  
【은사님들과의 만남, 스즈키사장과】

会社説明会の感想を一言でいうと、後輩たちが‘K-move’に参加してから一生懸命頑張つて来たその成果を得るために真剣な雰囲気でした。

회사설명회의 감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후대들이 ‘K-move’에 참가한 뒤 열심히 노력해온 성과를 얻기 위해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また、説明会でも話しましたが、まだ社内には外国人が私一人なので、韓国人や外国人に対してどんな雰囲気になるのかは、これから私たち次第と思います。

또한, 설명회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직 사내에 외국인이 저 혼자이기에, 한국인 혹은 외국인에 대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는, 지금부터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共によい雰囲気を作っていく後輩が入ってきてくれれば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그러기 위해 함께 보다 나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후배가 들어와 준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これからの後輩や今までお世話になった皆さんのためにも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앞으로의 후배나 지금까지 신세를 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白石大学(韓国) URL: <http://www.bu.ac.kr/english/index.jsp>

백석대학교 URL: <http://www.bu.ac.kr/english/index.jsp>

2019/09/06

백스정보시스템株式会社

茨城支社 崔

이바라키 지사 최